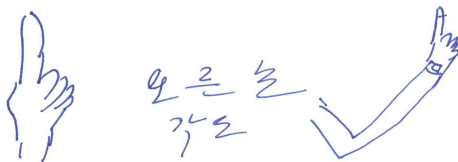


사랑을 중단하지 말고 행하여라

본 문 요한계시록 2장 2-5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초안 - 오른손 검지를 위로 들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까지 손을 내리지 말고 아래위로 계속 흔들면서 힘 있게 표현한다)

고로 성경을 보면, ‘신앙으로 보는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그 어떤 말을 하며 유혹해도 듣지 말고, 내 말을 지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로 타락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져 사랑이 끝났습니다.

사랑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 오른쪽 검지, 중지 들어 두

사람 표현 / ‘사탄의 꾀를 받고’ : 왼손 다섯 손가락을 폼다가 오므리면서, 마치 신호등 깜빡이듯이 왼손이 다가와서 오른손을 잡는다.)

아담 이후 다른 시대가 와서 하나님은 다시 뜻을 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을 중심인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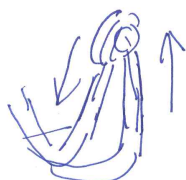
뽑아서 사랑의 역사를 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육과 영의 구원’ 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하나님과 성자는 땅의 나사렛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하나님의 육신으로, 성자의 몸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던 종교인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사랑해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뜻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자 주님의 사랑의 대상체이며 육신으로 나타난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시대 구원을 받고, 그 시대에 해당되는 사랑의 목적과 뜻을 이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의 역사>를 실현하십니다.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사랑의 뜻을 정녕코 이루시기 위해 때가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성자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택하고 예정하여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택함 받은 자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조건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함으로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삼으시고 그 시대에 해당되는 사랑의 뜻을 펴며 구원 역사를 펴 나가십니다.

성약 재림시대인 이 시대는 하나님과 성자께서 신부의 대상으로 조건을 세운 자를 택하여 그를 가르치시고,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어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뜻’을 펴 나가십니다.



(‘성자’ : 오른손 주먹 쥐고, ‘신부’ : 왼손은 손바닥을 펴고,
왼손이 오른손을 껴안으며
‘사랑의 뜻을 펴 나간다’ 할 때 손을 위아래로 흔든다)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사랑이 중단되면, 다른 모든 것들까지 다 중단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사랑하다가 사랑이 중단되면 다른 것도 모두 중단됩니다.

사랑을 하다가 중단하는 자들은 사랑이 잠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사랑이 죽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깨어나 봐야 그동안 자기가 잠잔 것을 알게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 봐야 자기가 죽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마다 첫사랑을 찾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다시 사랑해 봐야 그제야 자기가 사랑의 죽음의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주 주일말씀과 오늘 수요일말씀을 듣고, 사랑의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다른 모든 일들이 다시 진행됩니다.** (기도, 전도, 관리, 강의, 설교, 가치의 삶, 기쁨의 삶)

★ 사랑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두 손으로 '하트'를 표현한다.)

그리고 '끊어진다' 할 때 오른손을 펴서 위나 옆에서 치면서 칼로 자르는 듯한 모습을 표현한다)

집에 전기가 끊어지면 TV, 냉장고 등 전자 제품들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자 주님과 사랑이 끊어져 사랑의 잠을 자며 사랑을 진행하지 않으면, 신앙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섭리사의 모든 사람들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잠자고 죽어 있는 사랑이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00일 마지막 기회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전인 12월 21일까지 못 했던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 이 급할 때 다른 것도 아닌 사랑의 잠을 자면, 올해 최고 귀중한 때를 다 놓쳐 버리게 됩니다. 마치 전기가 들어오면 전자 제품을 가동시켜 할 일을 하듯이, 어서 사랑의 잠에서 깨어나 그동안 못 했던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성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1>

<성자의 말씀>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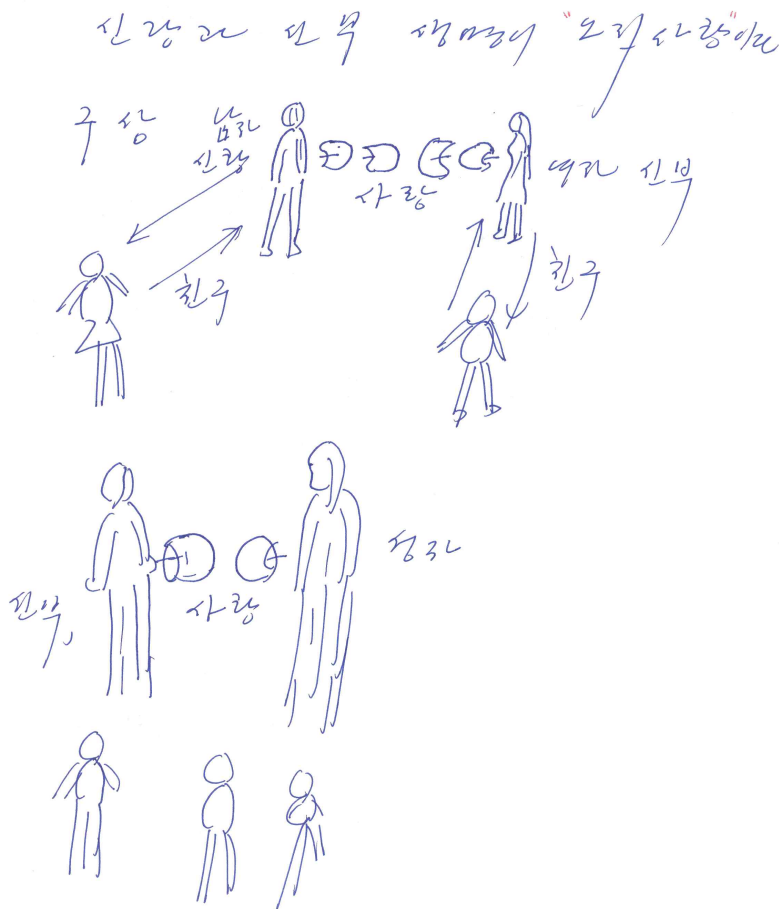
★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생명은 ‘오직 사랑’ 이다.



(두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하트를 흔들면서 강조한다)

흔들면서
강조

사랑이 없으면 남남이다.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다.
다른 사람과 못 하는 ‘사랑’ 을 하기에 신랑과 신부다. 그런데 ‘사랑의
특권’ 을 상실하면, 사랑이 잠을 자는 자요, 사랑이 죽은 자다. 고로 더
이상 신랑과 신부라고 할 수 없다. <영상2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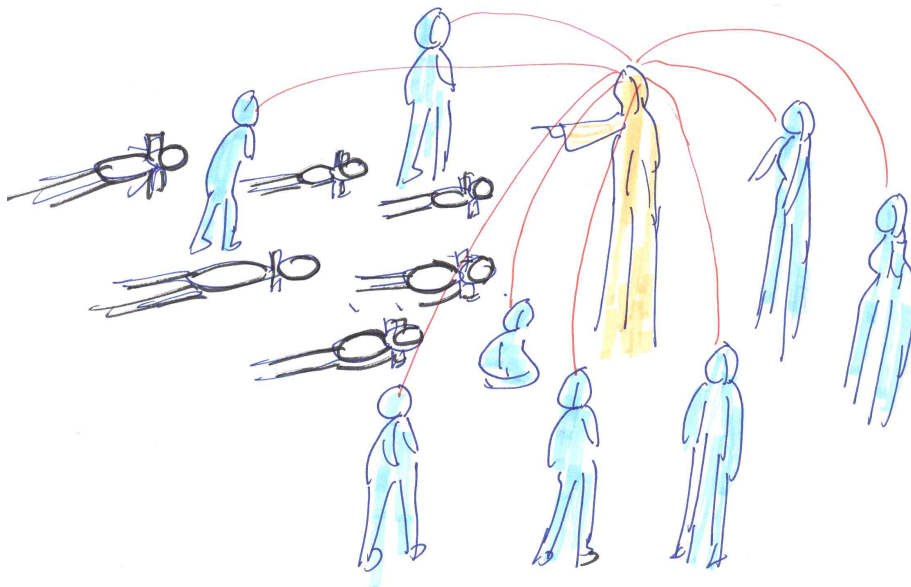


★ 이 시대 섭리역사로 온 너희가 구시대 기성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나? ‘신부적 사랑’ 때문에 낫다 하는 것이다. 곧 나 성자를 신랑으로 보고 사랑하며, 나의 신부가 되어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못하고 사랑을 중단하면 시대 말씀도 못 주고, 쥐도 못 깨달아 너희도 구시대 사람과 똑같이 된다.

★ 섭리역사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의 신부가 아니다. 신부의 생명인 ‘사랑’을 쉬지 않고 진행해야 된다. 그 사랑은 ‘신랑을 향한 사랑’이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여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도 사랑이 중단되면 결국 헤어지고 만다. 너희도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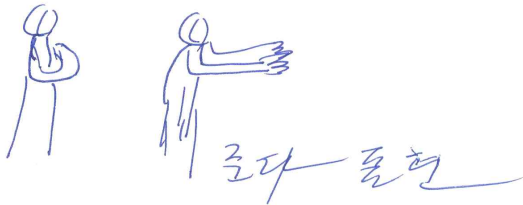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사랑하다가 중단하여 사랑을 잃고 사랑의 잠을 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깨닫고 제정신이 돌아와야 사랑의 잠을 깬 것이다. 사랑의 잠을 깬으면, 어서 활동해라. 그래야 또 잠을 안 자게 된다.



잠에서 깨고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느새 누워서 다시 잠을 자게 된다. 깨달았으면 입으로 시인하면서 즉시 행해야 된다. 입으로 기도함으로 행하고, 마음·정신·생각으로도 행하고, 몸으로도 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랑의 죽음의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자가 된다. <영상3 끝>

어서 깨어나 자기가 사랑의 잠을 자느라 얼마나 할 일을 못 했는지 깨닫고 어서 할 일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받을 것을 못 받았는지 깨닫고 다시 열심히 하여 받을 것을 받도록 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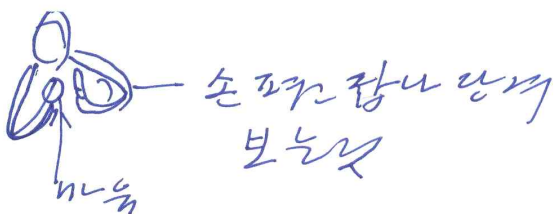


(청중에게 무엇을 주듯이 청중을 향해 양손을 뻗었다가 다시 설교자 가슴으로 가지고 오는 모습)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일’도 열렬히 하면, 밤이 와도 잠이 안 오고 날이 새도록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랑’도 열렬히 하면, 사랑의 잠이 안 오고 계속 진행하게 된다. ‘기도’도 열심히 하면 졸지 않고 하지만, 열심히 안 하면 졸다가 자게 된다. ‘말씀’도 정신을 집중해서 열심히 듣지 않으면 잡생각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귀한 시간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다 간다.

열심히 해야 다른 데 정신이 휘말리지 않고 제 할 일을 하게 된다.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사탄도 힐문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뺏지 못한다.



(오른손을 주먹 쥐고 가슴 앞에 세워 두고, 사탄을 왼손으로 표현하여 주먹 쥔 오른손을 잡아당기다가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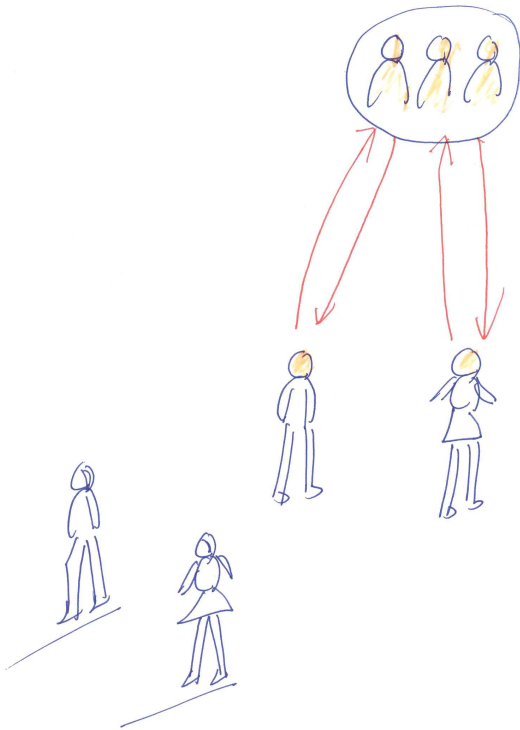
같은 실력을 가진 운동선수도 더 열심히 하는 자가 승리한다. 열심히 해야 자기 실력과 자기 잠재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된다.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하든지, 자기 몸으로 하든지 모두 열심히 하여라. **열심히 하는 자가 승리하고, 나 성자와 함께 승리의 길을 가게 된다.** <영상4 끝>

★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열심히 이 세상에 ‘사랑의 뜻’을 펴신

다. 이에 너희가 전심으로 열심히 응해야만 그 사랑의 뜻을 이루어, 너희 수고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를 얻게 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 오직 삼위일체는 ‘사랑의 뜻’을 이루려 역사하고 있다. 이 시대에 마지막 신부 시대로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사랑’을 이루려고 나 성자가 시대 사명자의 육을 쓰고 다시 왔는데, 사랑을 받을 대상자인 이 시대 땅의 사람들이 시대 사명자를 사랑으로 누명을 씌워 나의 심정을 상하게 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인 개인이나 민족이나 구시대가 도리어 심판을 받아 매를 맞게 된 것이다.

<영상5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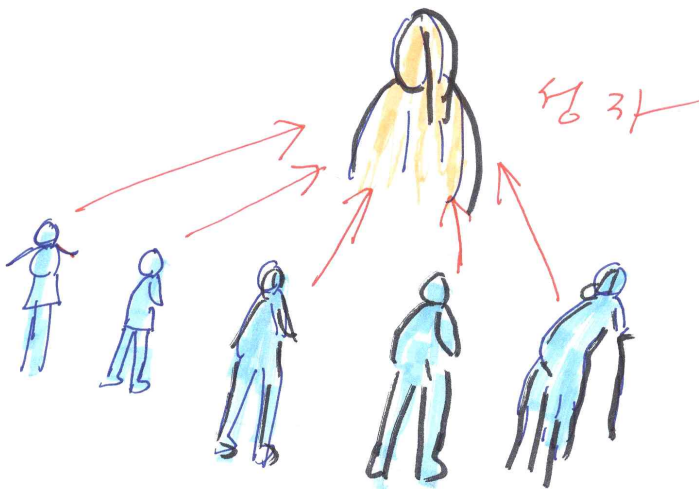
하나님과 나 성자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도 기다린 자들이 도리어 악평하고 불신하여 심판을 받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이 아니냐. 너희는 믿고 행하였기에 이같이 따라온 것이다.

★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열심히 사랑의 역사를 이뤄야

할 너희인데, 사랑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있다. 잠자는 자는 모르니, 깨어 있는 자들이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단상에 서는 자들과 지도자들도 잠을 자고 있으니, 사랑의 잠을 자는 자들을 못 깨우는 것이다. 누가 깨우고 있느냐. 도리어 이제 온 자들이 열심히 뛰고 달리며 깨우고 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육체 사랑은 나이 먹으면 열심이 식는다. 신앙적 정신적 영적 사랑은 나이가 30이 되었든지, 40이 되었든지, 50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모두 할 수 있다. 나이 제한이 없다.



정신적 영적 사랑을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이 먹었다고 모두 육을 중시하여 살아가니, 사랑의 깊은 잠에 빠져 사랑이 죽어 있는 자들이 많다. 너희가 기도하여 혼적 단계에서 자신의 상태를 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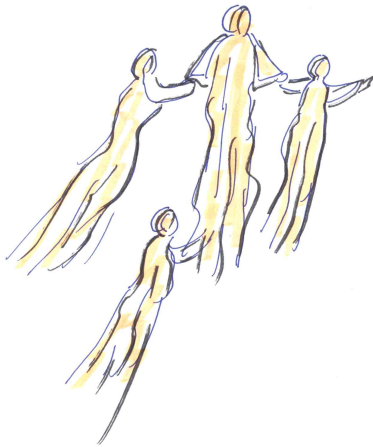
★ 나 성자를 신랑으로 삼고 살려면, 항상 ‘처음 사랑’ 이 필요하다. 처음 사랑을 소유한 자가 신부의 자격이 되는 자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듯 전능자와 나 성자 앞에 기분 따라 기복 있는 사랑을 하면 하늘의 뜻을 못 이룬다.

★ 나 성자와의 사랑은 사람끼리의 이성적 육체적 사랑과는 다르다. 나 성자와의 사랑은 영적 사랑이라서 끝도 없이 지속하는 사랑이다. 사랑 하는 데까지 존재한다.



<영적 사랑>을 그같이 많이 말씀했어도 어떤 사람은 영적 사랑을 체험도 못 하고 사니 되겠느냐. 체험뿐 아니라, 자기가 사랑의 실제 대상체가 되어서 매일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이같이 사는 자만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육’ 이 나 성자의 신부가 되어 살다가 자기 ‘영’ 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키고, 때가 되어 나 성자 본체가 재림하면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영상6 끝>



★ ‘영 휴거’ 전에 어서 사랑의 잠을 깨고, 열심히 사랑의 삶을 살아라. 나를 향한 사랑의 잠에서 깨어나야 그제야 행할 것을 행하여 얻을 것을 얻게 되고, 그제야 너희 형제끼리도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

★ 신앙생활에서 최고는 ‘사랑’이다. (‘최고는 사랑’ : 오른손 엄지 들기)
‘사랑’에 해당되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구원도 이루고, 너희 육도 영도 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의 최고의 창조 목적인 영원한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와 인간과의 사랑을 막고, 인간들이 삼위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깨뜨리고 꺾어 인간을 자기의 상대로 만들고, 자기가 인간의 주체가 되려고 한다. 사탄은 자기가 쓰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각자의 마음과 몸을 통해 역사한다. / 고로 기도하여 사탄을 물리치고, 오직 말씀을 절대시하여 사탄을 물리쳐라!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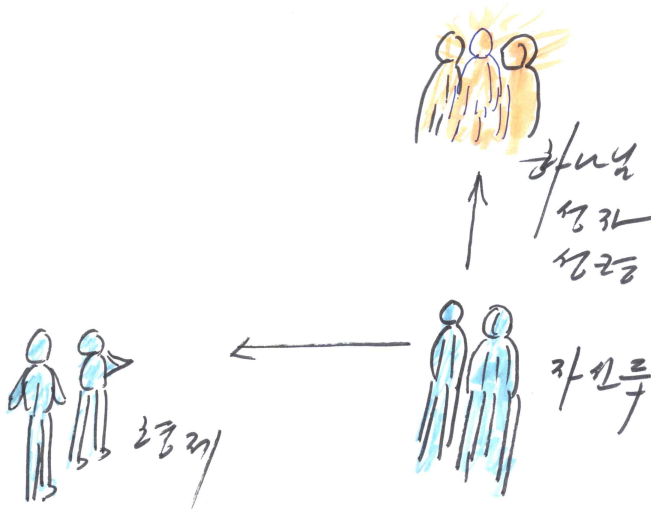


★ 사랑의 잠을 자는 자들과 사랑이 죽은 자들은 모두 사탄의 주관을 받아 책임을 못 하고 열심히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중단한 까닭이다.

섭리역사는 신부 세계라서 사랑을 중단하고 사랑을 상실하면 못 견딘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안 보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만 사랑하지 말고,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여라. 그래야 화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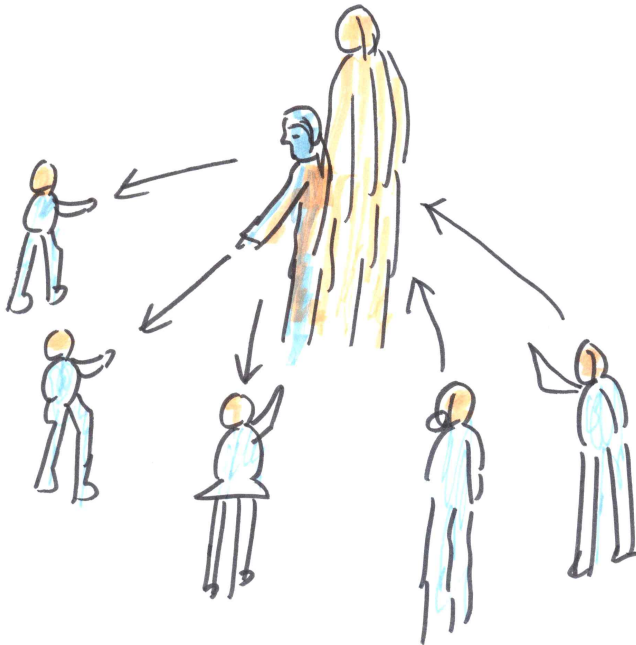


다른 것을 열심히 해도 ‘사랑’이 식어서 즐거나 잠을 자면 곤고하고 힘들어 쓰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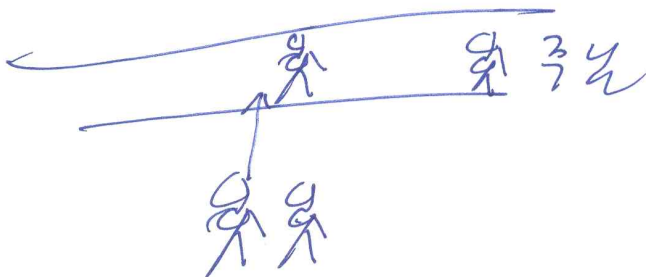


★ 나 성자와 1:1 사랑이다. 2:1 사랑이 아니다. (오른손 검지, 왼손 검지로

1대1 표현 / 오른손 검지와 소지, 왼손 검지로 2대1 표현) 그러니 다른 사람 의식 말고
사랑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 자신이 나 성자 앞에 지구촌의 단 한 사람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사랑하여라. 개성의 사랑이다.



꿈에도 너희가 혼자 있을 때 나 성자가 1:1 사랑을 해 준다. 꿈에 자
기 옆에 따라다니는 자는 사랑의 방해자다. 너 혼자 있어야 내가 사랑해
준다. 차원을 높이면 혼자 있어 나를 만나게 된다.



나의 이 말을 하나의 설교로만 듣지 말아라. 오늘 나 성자가 너희 개
개인을 내 앞에 놓고 1:1로 한 말이다. <영상8 끝>



★ 사랑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자들아. 사랑을 뺏기지 말아라.
나는 사랑 속에 모든 것을 다 넣어서 너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준다.

너희를 사랑하는 성자 주니라. 살롬!